

1.23 적용 예문(Application Example)

에세이 적용 예문

제목,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 **잠언 1장 6절 주해 :**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한 정의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부제목,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제목과의 상하 문장 간격 1.5Lines

장 제목(표제), 바탕, 14points, 굵게, 왼쪽 맞춤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잠언 1장 6절에는 네 가지 유형의 지혜의 말들 “마살,” “멜리짜,” “디브레 하카뎀,” 그리고 “히도탐”(한글성경[개역개정]에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그 오묘한 말”로 번역)이 나타난다... (중략)

장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문장 상하 간격 1.5Lines, 11points, 양쪽 맞춤

2 잠언 1:6의 지혜의 네 가지 유형들

문장 들여쓰기 1Tab

장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히브리 본문을 먼저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마살과 멜리짜(멜리짜는 접속사 “베”와 합하여 음리짜로 음역. 마살과 멜리짜... 둘 다 “뎀”으로 시작), 그리고 디브레 하카뎀과 히도탐(둘 다 복수, 둘 다 “뎀”으로...) 눈에 띈다... (중략)

절 제목(부표제)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1 네 가지 지혜 유형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절(부표제) 이하 하위 단위의 제목들 아래는 싱글 스페이스

잠언 1:6의 네 가지 유형들에 대하여 서로 달리 언급한 학자들 두 분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왈키(Bruce K. Walk)는 이 네 가지가 비슷한 말들이라고 한다... (중략)

절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2 네 가지 용어들의 정의 - 절 제목(부표제), 바탕, 13, 굵게, 왼쪽 맞춤

2.2.1 마살 - 제목(표제)을 연이어 표기하는 경우 스페이스를 두지 않는다.

항 제목(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 맞춤

잠언 1:6의 마살(복수는 “메살림,” 복수 연계형은 “미슐레”)은 위에 말하였듯이 잠언 1:1; 10:1; 25:1에도 각각 나타나는 단어이다. 마살은 우리말로 는 영어 번역 ‘proverb’를 흉내 내어 ‘잠언’(보통 국어사전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이라고 번역하였다... (중략)

우리가 ‘마살’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례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살은 우리의 ... 지혜의 책들, 예를 들어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에서만 발견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목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2.2.2.1 멜리짜 - 목 제목(부부부표제), 바탕, 12, 굵게, 왼쪽 맞춤

멜리짜는 위에서 보듯, 잠언 1:6 상반절에서 마살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용어이다. 멜리짜를 킹제임스 성경(KJV)은 해석(interpretation)이라고... (중략) 혹은 ‘해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점에 유의하여 하박국 2:6을 보면 다음과 같다:

블록 인용, 바탕, 10, 양쪽 맞춤, 문단 왼쪽 1 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¹ (이탈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문장 들여쓰기 1Tab(또는 네 글자)

블록 인용 상하 문장 간격 1Line

블록 인용 위·아래 공백 각각 싱글 스페이스

이 대목은 분명히 갈대아인들(바벨론 사람들)이 주변 열국을 침노하여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부려먹는 행위를 신랄하게 비꼬고 있다... (중략)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3 나가는 말

멜리짜가 비꼬는 말인 것은 겔 22:4-5에 나타난 ‘칼리스’란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에스겔서의 이 문맥은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문맥이다.

각주, 바탕, 10, 양쪽 맞춤, 1Tab 들여쓰기

각주 상하 줄 간격 1Line

- 1 로버트 L. 알덴, *잠언 주석: 현대를 위한 고대 지혜*, 김형준, 이성훈 역 (서울: CLC, 2014), 143-50.
- 2 매튜 헨리 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11-5.
- 3 참고로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종종 의인화하여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다.
- 4 Longman Tremper III, *Proverbs: Baker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sdom and Psalm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15), 243.

참고 문헌

표제, 바탕, 14points, 굵게, 왼쪽 맞춤, 아래 3spaces,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

알덴, 로버트 L. *잠언 주석: 현대를 위한 고대 지혜*. 김형준, 이성훈 역. 서울: CLC, 2014.
 헨리, 매튜. *매튜 헨리 주석: 잠언 전도서 아가*.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9.

바탕, 11points(영어 논문 12points), 보통체, 양쪽 맞춤, 문장 상하 간격 1.5lines, 두 번째 줄부터 1Tab(네 글자) 들여쓰기, 들여쓰기 위치 각주와 동일

학위 논문 적용 예문

부의 제목,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부의 번호와의 상하 문장 간격 1.5Lines

제2부

부의 번호,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칼빈 신학 내(內)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그 비유적 표현들과 의미들

학위 논문(Thesis)의 각 부는 한 페이지(1 page)로 구성한다. 각 부 뒤에 따라오는 각 장들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블록 인용, 바탕, 10, 양쪽 맞춤, 왼쪽 1Tab 들여쓰기, 첫 문장 들여쓰기 생략

이것은 일견 모순된 일이지만 우리에게서 떠나갔지만 그것은 그(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데, 즉 그가 지상에 육신을 띠고 있던 한 육신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이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라”(요 16:7)라고 증거하셨다... 실로 우리는 그가 그때 얼마만큼 풍성하게 그의 성령을 부어 주었으며, 얼마나 놀랍도록 그의 나라를 증진시켰으며, 얼마나 큰 권능을 과시해서 자기 백성을 돕고 원수들을 흠어 버렸는가를 본다. 그러므

로 그(그리스도)의 승천에 의해 그의 육체적인 임재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졌지만(행 1:9) 그것은 신자들이 지상 순례 생활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한 바를 성취하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그리스도)의 육체가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워진 것과 같이, 그의 권능과 효력도 하늘과 땅의 모든 한계를 넘어 전파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엄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고 있다.¹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부 표지 단락 간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블록인용 상·하 문장 간격 1Line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성령이 믿음을 통해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이런 영적인 연합을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교리를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여겼다.² (이탈릭체는 필자의 강조임.)

각주, 바탕, 10points, 양쪽 맞춤, 1Tab 들여쓰기

각주 상하 줄 간격 1Line

- 1 Institutes, 2.16.14
- 2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예배·삶의 균형을 추구한 사람*, 칼빈, 버크 파슨스 편, 백금산 외 19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90.

제4장

장의 번호,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 :
그 다양한 광범위성들과 비유적 표현들**

장의 제목, 바탕, 18points, 굵게, 중앙 맞춤, 장 번호와의 상하 문장 간격 1.5Lines

장 제목 아래 공백 트리플(triple) 스페이스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사상 또는 그의 전체 신학의 요약본과 같은 것으로 그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는 셀터 하위스(Herman J. Selderhuis)와 방델(François Wendel)의 진술, 즉 “칼빈은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각인되었고,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1559년판 **기독교 강요**이다”와 또는 “칼빈주의 전체는 **기독교 강요** 속에 들어 있다”라는 주

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질 제목(부표제)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질 제목(부표제), 바탕, 14points, 굵게, 왼쪽 맞춤

4.1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광범위성들

문장 들여쓰기 1Tab

학위 논문 안에서는 예제이와는 달리 질(부표제) 이하 하위 단위의 제목들 아래에서도 싱글 스페이스를 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 사상은 칼빈의 전체 신학 안에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역할을 하며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의 ‘핵심 사상’ 같은 중요한 신학적 역할은 선명하게 드러난 ‘표면적(*explicit*) 방식’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내면적(*implicit*)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4.1.1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다양한 비유적 표현의 광범위성

첫 번째로,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의 광범위성’이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들로 그의 전체 신학 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항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4.1.2 관계적 개념의 비유적 표현들

항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항 제목(부표제), 바탕, 13points, 굵게, 왼쪽 맞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성(교전 1:9, 고후 13:13)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공간적이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를 훨씬 초월한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는 관계까지 나아감을 의미한다. 칼빈은 이러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매우 긴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여러 다양한 비유적 개념 형태들로 표현하였다.

질 제목 위 공백 더블 스페이스

4.1.2.1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 with Christ)

목 제목(부부표제), 바탕, 12points, 굵게, 왼쪽 맞춤

질 제목 아래 공백 싱글 스페이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그리스도와의 교제(*comm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사귄(*fellowship with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통(*communication with Christ*)”이라는 관계적 개념의 표현들을 가지고 그의 신학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의 “교제”라는 관계적 범주 안에서의 표현들은 그 의미상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빌헬름 니젤(Wilhelm Niesel)이 칼빈 신학의 포괄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콜프하우스(W. Kolffhaus)의 신학적 견해를 해석한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이 좀더 확실해진다:

나는 1938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투쟁했던 고백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 이 책을 출판하며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하였다. 그 이후 칼빈의 신학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훌륭한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나의 칼빈 신학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대부분의 저서들이 그의 각 교리들을 소중하게 해명할 때 기쁨을 느꼈다. 우선적으로 콜프하우스의 신학적 견해가 언급되어야 한다. 그는 평생 칼빈 연구에 헌신하며, 칼빈의 심오한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생애 말년에 완성한 *요한네스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사귄(Die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은 그의 포괄적 연구의 성숙한 결실로서 매우 탁월한 칼빈 연구 문헌 중 하나이다. 이 제목은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그의 중요한 신학 프로그램과 관련되며, 이는 그리스도이며 주님과 *의 사귄이다!*³ (도서명 외 이탤릭체는 본 필자의 강조임.)

이 진술은 한마디로 니젤이 칼빈 신학 연구에 있어서 콜프하우스의 포괄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콜프하우스는 그 사실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의 사귄”이 칼빈의 신학 안에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위 논문 안의 모든 글씨체(Font)는 한글인 경우 '바탕'이며,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숫자·기호 포함)일 경우 'Times New Roman'이다. 줄 간격(행간)은 1.5lines이다.

³ 빌헬름 니젤, *칼빈신학 강의: 칼빈신학에 대한 복음적 이해*, 이형기, 조용석 역 (서울: 한울 출판사, 2011), 25-6. 또한 다음의 책을 참고하십시오. Wilhelm Kolffhaus, *Christusgemeinschaft bei Johannes Calvin*, Neukirchen 1939. <참고 문헌 표기법은 3.3.2를 참고하라.>